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41

metroseoul.co.kr

metro® Economy

제4390호 2020년 2월 24일 월요일

[산업]
지원금 줄고
개통행사 없어도
'갤S20' 흥행가도
06

코스피	코스닥
2162.84 (0.00)	667.99 (0.00)

금리(국고채 3년)	환율(원·달러)
1.18 (-0.05)	1209.20 (+10.50)(21일)

〈장기〉

"공장 셧다운 막아라" 구미·울산 비상사태

산업계 '코로나19' 방어 전사대응
삼성구미사업장 직원 확진 판정에
LG·SK 등 구미산단 기업들 비상
현대차 등 거점 울산도 확산 우려

코로나19가 결국 국내 공장으로도 침입했다.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셧다운' 확대 우려도 커지는 모습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4일 오전까지 구미사업장을 폐쇄할 예정이다. 22일 오전 무선사업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다. 이에 따라 사측은 이날 전 직원을 귀가 조치하고 모든 시설을 방역했다. 확진자가 근무한 층은 25일까지 문을 닫기로 했다.

삼성전자 구미사업장은 갤럭시Z플립 등 프리미엄 모델을 생산하는 곳이다. 주말에 발생한 만큼 공급에 심각한 차질을 없을 것이라 밝혔지만, 밀접접촉자 격리와 정상화까지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일부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그 밖에도 구미산단은 국내 주요 산업 거점이 위치한 곳이다. LG그룹에서는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및 LG이노텍, SK그룹에서는 SK실트론, 인근 경북 영주시에는 SK머티리얼즈가 있다. 한화시스템과 효성티앤씨와 코오롱인더스트리 등도 구미산단 소속이다.

'산업 수도'라 불리는 울산도 비상사태다. 확진자가 신천지 울산교회에서 예배를 봤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규모 감염 사태가 번질 수 있다는 공포가 휘몰아쳤다. 울산에는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을 비롯해 에쓰오일과 SK에너지, LS니꼬동 제련 등 대규모 산업 시설이 있다.

앞서 여러 사업장은 최근 대구에서 코로나19가 대량 확산한 직후 코로나19 감염 공포로 한숨을 내쉰 바 있다. SK하이닉스 이천 사업장이 19일 800여명을 자가격리했고, 한국지엠 부평 공장도 20일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직원을 조기 퇴근 시켰다. 두산중공업도 같은 날 창원공장 사내부속병원을 의심자 발생으로 폐쇄했다. 모두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 '셧다운'에 나서야했었다.

이에 따라 산업계는 코로나19 방어를 위한 전사적 대응을 시작했다. 출입구에 열화상 카메라와 담당 인력을 확대하고, 소독제와 마스크 보급도 늘렸다.

특히 실제 피해를 입게된 삼성전자는 확산 방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당초 정부 방침을 그대로 따른다는 원칙으로 대응했지만, 지난 주말부터는 구미-수원 사업장 셔틀버스 운행을 중단하고 회의를 최소화하라는 지침을 내리는 등 추가 대책을 잇따라 내놨다. 〈2면에 계속〉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22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서초구 삼성 디지털프라자 서초점, 삼성전자서비스 서초센터에 임시 휴점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관련기사〉
2~5, 8, L1, L3~L8면

文 대통령, 위기경보 '심각' 격상

문대통령, 국가적 위기로 인식
총리 주재 재난본부 총력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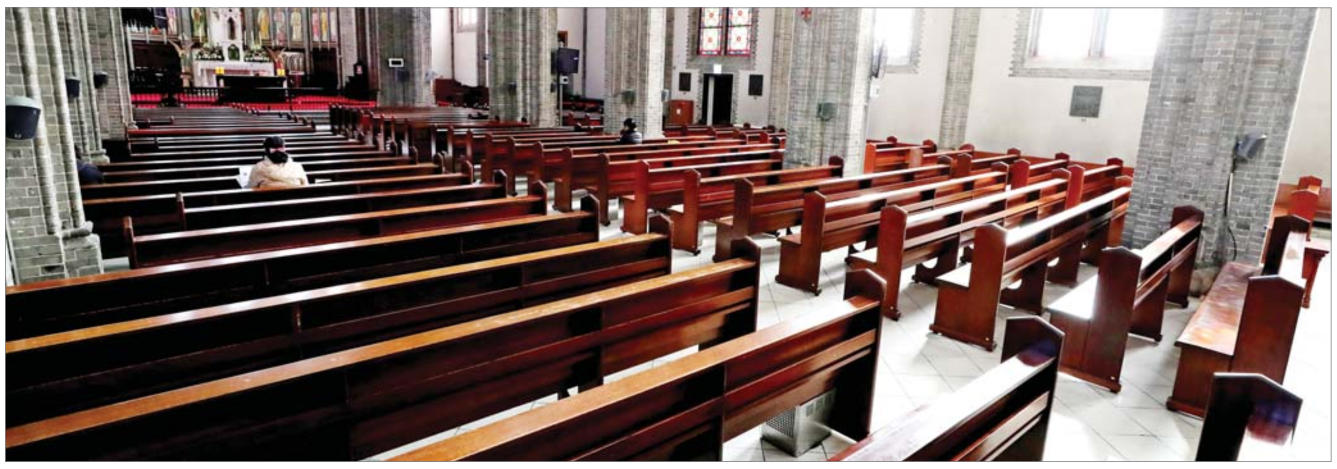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 지금부터 며칠이 매우 중요한 고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감염자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해 "(코로나19) 감염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확인해 조기 치료하는 것은 물론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방역 당국과 의료진, 나아가 지역 주민과 전 국민이 혼연일체가 돼 총력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는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며 "기존의 질병관리본부 중심의 방역 체계와 중앙사고수습본부 체제는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해 범부처 대응과 중앙정부·지자체의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해 총력으로 대응하겠다.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정부는 대구와 경북의 위기를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한산한 명동성당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고 있는 23일 오후 서울 명동성당 본당이 한산하다. /연합뉴스

감염병에 드러난 韓증시체질… 中보다 큰 폭 하락

한국 증시가 좀체로 코로나19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도 순매도세로 돌아섰고, 지수 하락폭은 주요 3개국(한·중·일) 중 가장 크다. 금, 달러, 채권 등 안전자산 가격은 급등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당분간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23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1월 20일~2월 21일) 코스피 지수는 4.4% 내렸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진 지난주 초 반등 국면에 들어서는듯 했으나 감염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지수는 2200선 아래로 떨어졌다.

◆ 중국보다 더 하락

해당기간 코스피 지수는 일본, 중국 등 주요 감염국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일본 닛케이225는 2.9% 하락했고,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1.8% 내렸다. 상하이 지수는 3000선을 돌파하며 약진하고 있다.

한국은 경제부터 지수까지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투자 대기자금 성격인 머니마켓펀드(MMF)로 한 달 만에 25조2000억원의 자금이 몰렸다. 〈4면에 계속〉

/손엄지 기자 sonumji301@

Solution
;1. (문제, 곤경의) 해법, 해결책 2. (퀴즈, 수학 문제의) 해답, 정답
[sə'luːʃn]

77억명 모두가 고갈 걱정없이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어떤 것일까?
화학은 더 친환경이 될 수 없을까?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첨단소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우리가 당면한 수많은 질문들에
한화솔루션은 기술에서 답을 찾기로 했습니다.

한화케미칼, 한화큐셀, 한화첨단소재의 기술력을 모아
가장 친환경적이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며
내일의 가능성을 이어가는 첨단의 솔루션으로.

우리는
오늘의 질문에
내일의 기술로 해법을 찾아내는
한화솔루션입니다.

한화솔루션

한화솔루션은 한화케미칼, 한화큐셀, 한화첨단소재가 만나 탄생한 새로운 회사의 이름입니다.